

제 ① 교시

국 어

홀수형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단어의 구조가 합성어인 것은?

- ① 풋고추 ② 헛수고 ③ 군소리 ④ 유리창

2. 밑줄 친 낱말의 표기가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힘에 부치다.
② 우표를 부치다.
③ 회의에 부치다.
④ 빈대떡을 부치다.

3.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나는 결코 성공한다.
② 중국은 인구나 땅덩이가 크다.
③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으로 날아갔다.
④ 할아버지께서 내게 말씀을 했습니다.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나) 「江江湖호애 病병이 겁퍼 竹죽林림의 누엇더니,
㉡ 關關東동 八팔百백 리니에 方방面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중 략)

百百川천洞동 겨티 두고 萬萬瀑폭洞동 드러가니,

㉢ 銀은 ㄱ튼 무지게 玉옥 ㄱ튼 龍龍의 초리,

섯돌며 썸는 소리 十십 리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논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

4.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여성적 어조가 나타난다.
②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다.
③ 일정한 음보로 리듬감이 드러난다.
④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5. ㉠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분신 ② 배경의 암시
③ 그리움의 대상 ④ 회상의 매개체

6.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과 이별을 슬퍼하는 모습에서 전통적 한의 정서가 느껴져.
② 꽃을 뿌리는 모습에서 떠나는 임을 축복하려는 마음이 느껴져.
③ 임을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④ 쉽게 이별을 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야.

7. ㉡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②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③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출세욕이 드러난다.
④ 임금 걸을 떠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난다.

8. ㉢의 표현 방식과 같은 것은?

- ①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②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
③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④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편,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을 ㉠ 타파(打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 결정(結晶)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세종 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과정에서 이 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세종이 ㉢ 고루(固陋)한 보수주의적 유학자들에게 한글 창제의 뜻을 굽혔던들, 우리 민족 문화의 최대 걸작품이 햇빛을 못 보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원효(元曉)의 불교 신앙이 또한 그러하다. 원효는 당시의 유행인 서학(西學, 당나라 유학)을 하지 않았다. 그의 ‘화엄경소(華嚴經疏)’가 중국 화엄종의 제3 조 현수가 지은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의 본이 되었다. 원효는 여러 종파의 분립(分立)이라는 불교계의 인습에 ㉣ 항거(抗拒)하고, 여러 종파의 교리(敎理)를 통일하여 해동종(海東宗)을 열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승려들이 귀족 중심의 불교로 만족할 때에 스스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움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꺼리지 않은, 민중 불교의 창시자였다. 이러한 원효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재산(財産)이 아닐까?

겸재(謙齋) 정선이나 단원(檀園) 김홍도, 혹은 혜원(蕙園) 신윤복의 그림에서도 이런 정신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화보모방주의(畵譜模倣主義)의 인습에 반기(反旗)를 들고, 우리나라의 정취(情趣)가 넘치는 자연을 묘사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산수화(山水畵)나 인물화(人物畵)에 말라붙은 조선 시대의 화풍(畵風)에 항거하여, ‘밭 가는 농부’, ‘대장간 풍경’, ‘서당의 모습’, ‘씨름하는 광경’, ‘그네 뛰는 아낙네’ 등 현실 생활에서 제재를 취한 풍속화를 대담하게 그렸다. 이것은 당시에는 혁명과도 같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의 그림이 민족 문화의 훌륭한 유산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 이기백,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

9. 위 글의 주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의 ② 묘사 ③ 예시 ④ 과정

10.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타파(打破): 깨뜨려 버림.
 ② ㉡ 결정(結晶): 결단하여 정함.
 ③ ㉢ 고루(固陋): 완고하고 융통성 없음.
 ④ ㉣ 항거(抗拒):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대항함.

11.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계승해야 할 전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산수화 ② 해동종
 ③ 훈민정음 ④ 민중 불교

12.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교계의 인습에 항거
 ② 민족 문화의 최대 걸작품
 ③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재산
 ④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간 이용에서 네거티브즘이 문제시되어야 하는 또 한 가지 측면은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하나의 공간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해 버린다는 것은 언제나 그 ㉠ 제한된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항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대도시 안에 있는 ㉡ 빈민촌은 그 자체가 제한된 공간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상은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한 ㉢ 특수 공간을 만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그 공간 밖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빈민촌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 바깥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있으나, 바깥 공간에서 빈민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공간 설계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서 추방당하거나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으로 공간 설계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설계의 결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한 공간의 안과 밖이 다 같이 좋은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을 ‘ ’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 개념은 하나의 건물 안에 있는 공간들이나 건물들 사이의 공간들, 또는 도시 공간 전체와 인간의 생활 공간 전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수근, 「건축과 동양 정신」 -

13. 위 글의 성격은?

- ① 허구적 ② 서사적
 ③ 논리적 ④ 상징적

14. ㉠~㉣ 중, 공간의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합 공간 ② 자연 공간
 ③ 기분 공간 ④ 사유 공간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윽고 비낀 날이 곤명지(昆明池)에 돌아지고 구름 그림
자 진천에 떨어지니, 눈을 들어 한번 보니 가을빛이 창망하
더라.¹⁾ 승상이 스스로 옥소를 잡아 두어 소리를 부니 오오
열열(嗚嗚咽咽)²⁾하여 원(怨)하는 듯하고, 우는 듯하고, 고향
듯하고, 형경(荊卿)이 역수(易水)를 건널 적 점리(漸離)를
이별하는 듯, 패왕(霸王)이 장중에 우희(虞姬)를 돌아보는
듯하니, 모든 미인이 처연하여 슬픈 빛이 많더라. 양 부인
이 옷깃을 여미고 물어 가로되,

“승상이 공을 이미 이루고 부귀 극(極)하여 만인이 부러워하고 천고에 듣지 못한 배라. 가신(佳辰)을 당하여 풍경을 희롱하며 꽃다운 술은 잔에 가득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이 또한 인생의 즐거운 일이어늘, 통소 소리 이러하니 ㉠오늘 통소는 ㉡옛날 통소가 아니로소이다.”

승상이 옥소를 던지고 부인 남자를 불러 난단(欄端)을 의
지하고 손을 들어 두루 가리키며 가로되,

“북(北)으로 바라보니 평(平)한 들과 무너진 언덕에 석양이
쇠한 풀에 비치었는 곳은 진시황의 아방궁(阿房宮)이요, 서
(西)로 바라보니 슬픈 바람이 찬 수풀에 불고 저문 구름이
빈 뒀에 덮은 데는 한무제의 무릉(茂陵)이요, 동(東)으로
바라보니 분칠한 성이 청산을 둘러고 붉은 박궁(博栱)이
반궁(半空)에 숨었는데, 명월은 오락가락하되 옥난간을 의
지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현종 황제가 태진비로 더붙어
노시던 화청궁(華淸宮)이라. 이 세 임금은 천고 영웅이라.
사해로 집을 삼고 역조로 신첩을 삼아 호화 부귀 백 년을
짧게 여기더니 이제 다 어디 있나뇨?”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1) 창망하다: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2) 오오열열(嗚嗚咽咽): 몹시 목메어 읊.

16. 위 글에 나타난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성함 ② 호탕함
③ 쓸쓸함 ④ 엄숙함

17. 위 글에 제시된 배경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
- ②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 ③ 갈등의 양상을 달라지게 한다.
- ④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

18. ㉠과 ㉡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은 감성적이고, ㉡은 이성적이다.
- ② ㉠은 구슬픈 느낌을, ㉡은 즐거운 느낌을 준다.
- ③ ㉠은 아름다운 소리지만, ㉡은 아름답지 못한 소리이다.
- ④ ㉠은 현실에 얽매이는 태도를, ㉡은 초월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 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 원: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람이 비호(飛虎) 같은데,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 원: 오오, 그리 하여라.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
아들었소.

생원: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 원: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 략)

말뚝이 : [쌤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해야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쌤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쌤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리 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봉산(鳳山) 탈춤」 -

1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비속어와 한자어가 섞여 사용된다.
- ② 양반 계층이 즐긴 연극의 일종이다.
- ③ 풍자와 해학으로 평민 의식을 드러낸다.
- ④ 황해도 봉산 지역에 구비 전승된 탈춤이다.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양반의 권위가 유지되고 있다.
- ② 황금만능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
- ③ 말뚝이는 정의를 실천하는 인물이다.
- ④ 취발이는 도덕적으로 청렴결백한 인물이다.

21. 글의 전개상 ㉑의 어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유하듯이 ② 체념한 듯이
③ 화가 난 듯이 ④ 자식 없는 듯이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 붕.’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주 모르지만 병)이 날라구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나)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두 아니고, 꼭 내 안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년이 아래니까 올에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현철이들 크건만 이걸 우아래가 몽툭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켈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훌훌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다) 현대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 가다 몸이 (장인님은 아직 이걸 채시니없이 들까본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앗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라) 그러나 이 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째루 발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 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종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예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 김유정, 『봄·봄』-

22.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투리를 사용해 토속적 느낌을 준다.
- ② 간결한 문체를 통해 긴박감을 조성한다.
- ③ 등장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 ④ 빈곤한 농촌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23. 위 글을 읽고 떠올릴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밥함지를 이고 가는 점순이의 모습
- ② 흙투성이 밥을 먹고 있는 나의 모습
- ③ 점순이가 나에게 결혼하자고 떼 쓰는 모습
- ④ 점순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빙긋 웃는 나의 모습

24. (나)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 ② 금강산도 식후경이군.
- ③ 그 밥에 그 나물이군.
- ④ 제 눈에 안경이라더니.

25. ㉠과 같이 말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랑 좀 놀아 주면 좋을 텐데. 왜 만날 일만 하는 거야.
- ② 정말 일을 잘 하는구나.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네.
- ③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해.
- ④ 만날 일만 한다고 성례(성예)를 시켜 줄 것 같아? 가서 얼른 줄라 봐.

※ 확인사항

자신의 문제지 문형(홀수형)이 정확한가?

답을 OMR 카드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하였는가?